

## 로마서 8장 31-39절(3)

- 읽을 말씀 롬 8:31-39
- 주요 내용

지난 시간에는 본문이 결코 칼빈의 견인 교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8장 1-30절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오늘은 본문의 진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.

## ② 이 단락의 진짜의미!

31-39절은 세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세 가지 답 모두 각 질문에 대한 이유를 보여줍니다.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각각의 질문과 답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
첫 번째 질문은 “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?”(롬 8:31)이고 그 답은 “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?”(32)입니다.

많은 이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므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실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. 그러나 구하면 주신다는 기도응답이 주제라면 이 단락은 전후 내용과 조화되지 않습니다. 뒤에 “기근이나 적신(35)” 이 나오므로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.

그러면 무슨 뜻일까요? 로마서 8장 29-30절과 병행구절인 에베소서 1장 4-5절 바로 앞에 “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(3)” 와 로마서 8장 32절 “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?”는 상당히 일치합니다. 이에 근거해서 “모든 것” 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지만 주로 궁극적인 구원에 필요한 은혜들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.

또, 31절은 원수들이 대적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, 32절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줍니다. “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?” 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원수가 대적해도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인데, 32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. 그런 의미에서 32절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도움을 통해 고난이나 박해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한 26-28절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므로 32절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신령한 도움과 은혜를 뜻하고, 그로 인해 원수의 대적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

두 번째 질문은 “**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?**”(33a)이고 답은 “**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.**”(33b-34)입니다.

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. 그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,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간구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“간구” 는 “정죄” 와 대조되고 있으므로 단지 중보기도가 아니라 십자가 죽음에 근거한 변호를 뜻합니다. 그 변호 때문에 원수가 아무리 고발해도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. 그리고 “간구하시는” 은 현제시제지만 “고발” 과 “의롭다 하신” 이 법정적인 용어이고, 하나님의 법정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포함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에 이루어 집니다.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심판 날 주님의 변호를 통해 정죄당하지 않을 것을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.

세 번째 질문은 “**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?**”(35a)이고 답은 “**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(35b).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(36).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(37)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**

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(38)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(39)”입니다.

여기서 “그리스도의 사랑”은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. 그리고 “끊는다”는 것은 그 앞의 “대적, 고발, 정죄”라는 단어들을 볼 때 우리가 정죄받고 버림받아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. 그런데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가? 라는 착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35절을 확대해서 말한 38-39절도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.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. 두 구절들 사이에 놓여있는 36-37절이 35절과 38-39절의 이유와 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.

36절은 공동번역에서 “우리의 처지는, ‘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.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’라는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.”라고 합니다. 이 구절은 시편 44편 22절처럼, 옛날부터 참 종과 참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고 우리도 박해를 받고 있다. 그러므로 박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. 즉 박해의 필연성을 말하면서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이 박해당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. 그리고 37절은 왜 “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”이 버림받게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보여준 것입니다.

많은 학자들은 32절 “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?”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주시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37절을 통해서도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. 그러나 “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(37)”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박해를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31-32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뜻합니다.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도움 때문에 넉넉히 이기므로 환난이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.

그런데 5장에서 환난은 인내, 인내는 연단,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. 환난이 무조건 소망을 이루지 않지만, 끝까지 인내로 반응할 것으로 보고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. 여기도 같은 대상에게 말하고 있습니다. 로마서 5장 1-8절에 기초해볼 때 의롭다 함을 받고,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, 환난 중

에도 기뻐하며,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. 또, 8장 1-30절에 기초해볼 때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우심으로 환난-칼을 넉넉히 이기고 있고 이길 자들입니다. 이런 성도들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바울은 35절과 같이 확신에 차서 말한 것입니다. 또한 바울은 1-30절의 기초에서 말할 뿐 아니라, 거기서 말한 것이 지속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 단락은 “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시고, 부르시고, 의롭다 하셔서,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, 즉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신다. 세상은 그들을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신다. 예수님도 그들을 변호해 주신다. 그런데 누가 감히 그들을 대적하고 정죄하며 고발할 수 있느냐? 누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?” 라는 내용입니다. 그들이 언을 최후승리를 말하고 있을 뿐 결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든 천국에 간다는 견인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.

또한 이 단락에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 8장 18-39절에서 바울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라 따끔한 경고입니다.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는 6장과 10장에서 그렇게 경고했습니다. 그런데 로마교회의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. 때문에 같은 격려를 긍정적인 형태로 한 것일 뿐 그것을 뛰어 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.

## ● 나눔과 적용

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. 고난과 환난 그리고 박해를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돌아보고, 그 시간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게 했던 주님의 도우심을 나누어 봅시다.